30年代 中半期 韓國文學의 方向轉換과 그 解釋問題

—朴英熙의 轉向에 관한 一 觀點—

金 容 稷*

Ⅰ. 提起되는 問題
Ⅱ. 基本事項 整理(1)
Ⅲ. 基本事項 整理(2)
Ⅳ. 轉向의 論理와 朴英熙의 경우
Ⅴ. 맺는말

Ⅰ. 提起되는 問題

한 作家에 대한 評價는 물론 여러가지 각도에서 試圖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나 그 評價의 基準이 어떤 것이든 韓國現代文學史에서 차지하는 懷月 朴英熙의 位置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餘地가 있을 수 없다. 우선 그는 1925년 始發을 본 카프의 중요 構成員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. 뿐만 아니라 항상 同組織의 中核을 차지해 왔으며 그 活動을 指揮, 監督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.

한편 흔히 우리는 카프에 대해 10餘年에 걸쳐 韓國文壇을 制覇했다는 말을 쓴다.[1] 그 組織의 指導的인 理論分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韓國現代文學史에서 朴英熙가 차지하는 位置는 認定되고도 남아야 하지 않을까 믿는다. 그런가 하면 전체 프로文學과 朴英熙의 상관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를 緊張케 하는 局面이 곧 朴英熙의 카프 脫退였다. 즉 1933년 10월 朴英熙는 그가 組織, 發足시키고 지도, 육성해온 프로藝盟에 대해 訣別을 알리는 退盟願을 提出했다.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해인 1934년 新年 劈頭에 東亞日報 紙上을 통해 長文에 걸친 退盟事由書, 「最近 文藝理論의 新展開와 그 傾向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. 여기서 말하는 1930年代 中半期의 方向轉換이란 바로 그와 같은 사실들을 가리킨다. 그리고 이 作業의 主된 目的은 바로 그와 같은 事態에 대해 올바른 解釋을 내리자는 데 있는 것이다.

Ⅱ. 基本事項 整理(1)

朴英熙의 退盟과 方向轉換에는 물론 一連의 前奏에 해당되는 사실들이 있다. 이제 參考로 그

*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副教授, 國文學

(1) *Cf.*, 白 鐵, 「朝鮮新文學思潮史現代篇」(白楊堂, 1949) p.74

들을 提示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.

(1) 1930年 林和 등 少壯派가 東京에서 歸國하여 카프에 加擔, 처음 朴英熙 등 舊카프系 멤버는 沈滯된 카프의 活動이 그들을 통해 止揚 克服되기를 期待했다. 그러자 少壯派들은 舊카프系 멤버가 양보, 방관하는 틈을 타 재빨리 組織의 實權을 잡았다.[2] 그리고는 카프를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의 하나로 몰기 시작했던 것이다. 이에 대해 朴英熙는 곧 그 不當함을 指摘하고 나섰다.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私席에서 찬성을 얻는 정도에 그쳤을 뿐 實質的인 成果를 얻기에는 이르지못했다.[3]

(2) 카프의 政治偏向을 우려한 나머지 프로文學에도 藝術로서의 側面이 고려되어야겠다는 뜻을 담은 「朝鮮프로레타리아 藝術運動의 昨今」을 1931년 1월 朝鮮日報에 발표. 그러나 組織 形態 및 創作活動의 實際 등 兩面에서 카프가 안고 있는 問題點을 指摘하고, 아울러 그 打開策을 摸索하고자 한 이 글은 少壯派들의 격렬한 非難과 批判의 과녁이 되었을 뿐이었다. 특히 權煥은 同 一文에 대해 右翼的 福田博士式이라는 非難을 加했다.[4]

(3) 물론 朴英熙를 향한 少壯派의 非難 攻擊은 그것이 一方的인 攻擊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 朴英熙의 應酬를 기다려 그 止揚, 克服策이 摸索되어야 했다. 그랬음에도 不拘하고 이 바람직한 事態는 끝내 實現되지 않았다. 미처 그럴 겨를도 없이 카프에 대해 一次檢擧의 旋風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.[5] 정확히 朴英熙는 1931년 6월 15일 鍾路署에 拘禁되었고 首藤라는 高等係 刑事의 取調를 받았다. 그 후 中央委員 全員과 함께 不起訴 處分을 받고 釋放되었다. 그러나 이미 合法的으로 카프의 會合이 이루어질 길은 없었다.[6] 따라서 少壯派와 朴英熙가 胸襟을 열어 놓고 當面課題를 討議, 그 止揚 克服의 길을 찾아낼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.

(4) 1933년 10월 7일, 朴英熙는 이 이상 더 카프에 머무를 必要가 없다는 判斷 아래 退盟願을 提出했다. 그리고 이 退盟願은 당시의 카프 書記長인 林和에게 提出되었다.[7] 그러나 이때 이미 카프 書記局은 完全히 그 機能이 痲痺되어 正式으로 退盟願을 接受 處理할 능력조차 갖지 못했다. 한편 이와 같은 一連의 事態는 朴英熙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. 그의 判斷에 의하면 政治團體化한 카프에 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곧 文學 이외의 事由로 해서 그 자신을 포함한 全 프로作家가 犧牲케 될 事態를 自願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.[8]

---

(2) 朴英熙, 「初創期의 文壇側面史」, 『現代文學』(1960, 5) pp. 221~222
(3) *Ibid.*, p. 222.
(4) *Idem.*, 『東亞日報』(1934. 1. 2)
(5) *Idem.*, 『現代文學』(1960. 3) pp. 227~228
(6) *Idem.*, 『現代文學』(1960. 5) p. 239
(7) *Ibid.*, pp. 239~240
(8) *Ibid.*, p. 238. 參考로 해당 부문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.

1932年 日本이 滿洲를 侵略한 후로는 그 彈壓이 一層 더 苛酷하여졌다. 새로이 治安維持法이 생기게 됨에 따라 思想團體로 自進解散하지 않는 團體는 어느 것이나 다 共産黨의 外郭團體로 取扱한다는 法令이 公布되었다. 그동안 空殼이 되어 있는 카프는 林和君에게 委任한채로 그냥 沈滯되어 있다가 이러한 危機를 當하게 되고 말았다. (中略) 이러한 時期에 있어서 카프 作家들은 두 가지 危險한 狀態에 빠지게 되었었다. 하나는 文學上으로 作家가 가져야